

6/7(화) 시편 26-30편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

오늘 만나볼 시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

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며 갈망하고 있다는 점(26:8, 27:4-9),

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(28:1, 30:2,8).

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

온전히 행하며(히. 톰)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(26:1).

성전을 사모하며(26:8), 악인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(26:4-5).

환란에 처했을 때도 시인은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습니다.

<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>입니다(27:4).

시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무덤에 비유합니다(28:1).

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죽음, 음부와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.

시인은 죽음과 음부로부터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(30:2-3).

부를 수 있는 <하나님의 이름>이 있기 때문에

시인들은 어떤 고통과 환란에도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.

(26:12, 27:14, 28:6-8, 29:11, 30:10-12).

“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
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
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
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(42:1-2)”

시인들에게 가장 두렵고 끔찍한 일은(27:8-9)

<하나님을 잃는 것, 하나님 없이 사는 영원>일 것입니다.

그들은 지금, 여기,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

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(27:13).

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, 그분으로 기뻐합니까?

<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>는 무엇입니까?

시편1권 (1-41편)

편	유형	편	유형
1	토라(지혜)시편	22	개인 탄식시
2	왕조시편	23	신뢰의 시편
3	개인 탄식시	24	찬양시
4	개인 탄식시(신뢰)	25	개인 탄식시
5	개인 탄식시	26	개인 탄식시
6	개인 탄식시(참회)	27	신뢰의 시편/개인 탄식시
7	개인 탄식시	28	개인 탄식시
8	찬양시	29	찬양시
9	개인 탄식시	30	개인 감사시
10	개인 탄식시	31	개인 탄식시
11	신뢰의 노래	32	개인 감사시(참회)
12	공동체 탄식시	33	찬양시
13	개인 탄식시	34	개인 감사시
14	개인 탄식시(=53편)	35	개인 탄식시
15	입장 기도문	36	지혜시편(탄식시/찬양)
16	신뢰의 노래	37	지혜시편
17	개인 탄식시	38	개인 탄식(참회)
18	개인 감사(왕조, 삼하22)	39	개인 탄식시
19	찬양시/ 토라(지혜)	40	개인 감사 노래/개인 탄식시
20	왕조시편	41	개인 탄식시
21	왕조시편		